

『三國遺事』寶壤梨木說話의 서술층위와 인물층위

신태수*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서술층위에서 찾는 인물층위
- III. 인물층위에 나타난 토속신앙의 성격
- IV. 보양이목설화의 인물층위가 지니는 위상
- V. 결론

【국문초록】

보양이목설화의 서사층위는 두 가지이다. 서술층위와 인물층위가 그것이다. 서술층위에서는 ‘獰目’의 위상이 보양에 비해 낮고 인물층위에서는 ‘이목’의 위상이 보양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높다. 인물층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 특히 ‘이목’을 주목해야 한다. 이목이 중심이 되는 사건은 네 가지이므로, 이 네 가지가 인물층위를 형성한다고 보편된다. 인물층위에는 대칭적 세계관과 공동체 의식이 나타난다. 이목만이 지닌 특징이 인물층위를 지배하므로, 인물층위가 신화시대의 대칭적 세계관과 전설시대의 공동체 의식을 내장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인물층위의 자양분은 민간설화이다. 민간설화로는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는데, 보양이목설화는 이 중에서 전설시대의 의식이 담긴 보양이목설화 유형을 수용했으리라 본다. 보양이목설화의 인물층위는 보양이목설화 유형의 거울이다. 인물층위가 시대를 비추고 유형을 가늠하게 하며 화자의식을 되짚어보게 한다.

주제어 : 서술층위와 인물층위, 대칭적 세계관, 공동체 의식, 신화시대, 전설시대, 민간설화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I. 문제제기

『三國遺事』〈寶壤梨木〉설화는 〈寶壤傳〉¹⁾과 璃目 이야기의 합성체이다. 화자가 〈보양전〉을 언급하면서 〈圓光傳〉의 璃目 이야기가 보양의 사적이라 했으므로, 〈보양전〉의 내용과 〈원광전〉의 이목 이야기가 보양 이목설화의 구성요소가 된다. 〈보양전〉의 내용이 이목 이야기로 인해 다 채로워졌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²⁾ 보양과 이목을 동시에 등장시킬 때 누구를 초점인물로 삼을지가 관건인데, 화자는 보양을 초점인물로 삼는다. 이목을 ‘璃目’이라 하지 않고 ‘梨木’이라 한 점이 그 증거이다. 보양과 이목에 차등을 두느라고 ‘璃目’이라 하지 않고 ‘梨木’이라 했을 성싶다.³⁾ ‘梨木’이라고 해서 ‘璃目’이 부수적 인물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서사층위를 살피면서 ‘璃目’의 위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양이목설화에는 두 갈래의 서사층위가 존재한다. 한 가지는 화자를 통

1) “釋寶壤 傳不載鄉井氏族謹按(『三國遺事』卷4 義解篇, 寶壤梨木)”에서는 보양의 전기에 향리와 씨족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지 않다고 한다. 전기가 있기는 했으나 부실하다는 취지이므로, 〈보양전〉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일부 논자들은 ‘傳不載’에 얽매어 아예 〈보양전〉이 없었다는 논법을 취한다. 잘못된 해석이 그릇된 판단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2) 일연이 〈원광전〉의 이목 관련 사실만으로 〈보양이목〉을 구성하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72세부터 78세까지 운문사에서 주지를 지낸 바 있으므로, 그 기간에 이목 관련 구전설화를 채록하고 참조했을 것 같다. 참조 결과는 ‘구전설화 비틀기’이다. 현전 설화에는 이목이 주체적 역할을 하는 데 반해 〈보양이목〉에서는 보양이 주체적 역할을 한다. 일연이 구전설화의 내용을 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천혜숙, 『삼국유사 ‘寶壤梨木’의 전승론적 검토』, 『韓國民俗과 文化研究』, 螢雪出版社, 1996, pp.19-24 참조.

3) ‘璃目’이라고 하면 〈보양이목〉은 ‘보양과 이목’이라는 뜻이 되고, ‘梨木’이라고 하면 〈보양이목〉은 ‘보양의 배나무’라는 뜻이 된다. 전자나 후자냐에 따라 이목의 위상은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는 이목이 보양과 대등해지고, 후자의 경우는 보양만 주동적 인물이고 이목은 부수적 인물이다.

해 서술되는 층위이고, 다른 한 가지는 ‘璃目’의 말과 행동으로 형성되는 정황의 층위이다. 전자와 후자를 각기 서술층위와 인물층위라고 할 때,⁴⁾ 서술층위에서는 ‘璃目’의 위상이 보양에 비해 낮고 인물층위에서는 ‘璃目’의 위상이 보양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높다. 화자가 龍王의 아들을 ‘璃目’ 혹은 이무기라고 지칭하는 데서 전자가 확인되고, 龍子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보양의 위업을 드높인다고 하는 데서 후자가 확인된다. 서술층위의 내용은 보양이목설화의 화자, 더 나아가서는 화자를 설정한 편작자인 일연의 의도이다. 일연의 의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서술층위 정도를 주목하면 족하지만, 보양이목설화의 전체 구도와 그 위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서술층위뿐만 아니라 인물층위까지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을 보면 혼선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대부분은 보양이목설화의 전체 구도나 미학적 특징을 살핀다고 하면서도 서술층위에만 얽매이곤 한다. 화자의 언술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더러는 인물층위 쪽으로 나아가고자 시도하기도 했지만, 연구의 거점을 서술층위에 두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은 편이었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술층위로부터 인물층위를 추출해낸 다음, 그런 인물층위로써 서술층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보양이목설화의 경우에는 인물층위를 추출해내기가 용이하다. 서술층위에서 이른바 ‘璃目’의 말과 행동을 적시하고 있고 서술층위의 주제와 상이한 구전설화도 많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서술층위로부터 인물층위를 분리해낼 수 있는 이상, 적절한 방법론을 설정해서 인물층위를 검토해야 마땅하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보양이목설화의 인물층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4) 서술층위와 인물층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태수, 「수로부인설화의 다층적 주제와 그 콘텐츠 개발 방안」, 『국학연구논총』10, 태민국학연구원, 2012, pp.111-142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고자 한다. 인물층위는 서술층위를 토대로 하므로, 서술층위로부터 인물층위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인물층위를 어떻게 추출할지가 관건이다. 서술층위를 세밀히 검토하면 인물층위의 윤곽이 드러날 터이지만, 이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는 없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형상과 견주어서 사실과 형상의 긴장관계를 검출할 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양이목설화의 화자 내지 찬자가 ‘실제로 있었거나 실제로 있었다고 믿고 있는 사실’을 서술층위에서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형상화 과정에서 사실이 어떻게 축소·확장되는지를 살펴야 인물층위가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밀고 나아갈 때, 인물층위가 지닌 위상과 보양이목설화의 서술의식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본다.

II. 서술층위에서 찾는 인물층위

보양이목설화는 寶壤梨木條의 중간 부분에 나온다. 전체 구성이 ‘보양의 행적 → 보양과 이목의 관계 → 보양의 행적’이므로, 보양과 이목의 관계가 바로 보양이목설화이다. 보양이목조가 보양 사적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보양이목설화는 보양 사적의 일부분이 된다. 보양이목조의 화자는 <보양전>에 향리와 씨족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관변측의 문헌자료와 <원광전>의 이목 이야기와 향리의 구전자료까지 두루 동원하고 있다. ‘~記’니 ‘~傳’이니 ‘~俗’이니 하면서⁵⁾ 인용문을 밝힌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보양이목설화는 주로 <원광전>의 이목 이야기와 향

5) 『三國遺事』卷4 義解 篇, 보양이목에서 보양의 사적을 보완하기 위해 ‘郡中 古籍裨補記’와 ‘古傳’과 ‘鄉俗’을 동원하고 있다. ‘郡中 古籍裨補記’는 기록물이고 ‘鄉俗’은 구전설화이다. ‘古傳’은 기록물과 구전설화의 중간적 성격을 지녔으리라 본다.

리의 구전자료에 바탕을 두므로⁶⁾ ‘~傳’과 ‘~俗’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보양이목설화는 전기적 성격을 지닌 설화이다.

전기적 성격은 서술층위에서 나타난다. 화자가 보양에 초점을 맞추어 일대기를 구성해낸 점이 그 근거이다. 보양이 탁월한 능력으로 민간 영웅을 거느린다고 하려니 이목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밝힐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이 점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이목으로 인해 보양의 사적이 빛나기 때문에 약이 되지만, 이목관련 내용으로 인해 서술층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독이 된다. 독이 되는 현상이 눈길을 끈다. 화자는 보양이 이목을 거느린다고 하나,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 정황적 측면은 이목이 보양을 오히려 능가한다. 서술층위에서 보양을 능가하는 이목의 행적이 바로 인물층위에 해당된다. 이목이 보양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서술층위이지 인물층위가 아니다. 서술층위의 구성을 사건 단위로 정리하면서 이 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 보양이 당나라에서 불법을 전수받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배가 서해 가운데 이르렀다.
2. 서해 용왕이 용궁으로 보양을 맞아들여 불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보양은 용왕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
3. 용왕은 답례로 금빛의 비단 가사 한 벌을 주고, 자기 아들 이목을 시봉으로 쓰라고 하며 데려 가게 했다.

6) 화자는 보양의 전기 속에 있어야 할 이목 이야기가 <원광전> 속에 들어 있다고 했지만, 필연성이 있는 지적은 아니다. 이목 이야기의 고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광전> 속에 들어 있으면 그르고 보양의 전기 속에 있으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목 이야기가 <원광전>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보양의 전기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따져야 합당하다. 원광 이전부터 僧과 龍 내지 불교신앙과 토속신앙의 관계를 따질 때 이목 이야기의 기능을 긴요하게 여기는 관행이 있었을 터이므로, 이런 차원에서 이목 이야기의 기능적 측면은 반드시 살펴야 할 과제가 된다.

4. 용왕은 ‘내 아들과 본국으로 돌아가 작갑에다 절을 짓고 거기에 있으면 도적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해 안에 불법을 수호하는 임금이 나와 삼국을 통일할 것이다.’라고 한다.
5. 작갑에 이르니 원광이 인쾌를 안고 나타나 보양에게 주고 사라졌다.
6. 폐사를 일으키려고 북쪽 고개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았다. 고개 아래의 뜰에 황색 오층탑이 있었으나 막상 내려가니, 자취가 없었다.
7. 보양이 다시 고개로 올라가서 보니, 고개 아래의 뜰에 까치들이 땅을 쪼고 있었다. 용왕이 작갑이라고 하던 말이 떠올라 그 곳을 폈다. 예전의 벽돌이 무수히 나왔다.
8. 예전의 벽돌을 모아서 쌓으니 탑이 되었다. 그 곳이 예전 절터인 줄 알고, 절을 짓고 작갑사라고 했다.
9. 오래지 않아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했다. 보양이 작갑사에 거처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갑의 밭 오백 결을 합쳐 절에 기부하는 한편, 작갑사에 액자를 내려 ‘雲門禪寺’라고 했다.
10. 이목은 늘 절 옆의 작은 못에 있으면서 불법의 덕화를 남몰래 이루었다.
11. 어느 해 아주 가물었다. 농부들이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자 보양이 이목에게 비를 내리게 했다. 이목을 비를 내리니 그 일대의 농부들이 흠족해 했다.
12. 천제는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며 사자에게 이목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목이 위급하다고 고하니, 보양은 이목을 평상 밑에 숨겼다.
13. 천제의 사자가 뜰에 이르러 이목을 내놓으라고 하자, 보양은 뜰의梨木을 가리켰다. 사자는 그 이목에 벼락을 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14. 꺾인 배나무를 용자 이목이 어루만지니 소생했다.⁷⁾

7) <附記>에서는 전연 다른 내용을 소개한다. 배나무를 살려낸 주체가 이목이 아니라 ‘師’라고 한 점이 그것이다. 논자들은 ‘師’를 보양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주술사로 판단하기도 한다. <부기>의 내용을 인정한다면, 어느 쪽이든 간에 이목의 위상은 적지 않게 추락한다. 이목의 중요한 신통력 한 가지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화자가 서사 문맥상 이목의 행적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목의 행적을 보양의 행적으로 여기게 하려는

15. 보양은 당나라에서 돌아온 직후 추화군의 절에 기거했다. 그때 태조를 도왔다. 도적들이 견성을 거점으로 삼아 항복하지 않자, 보양이 태조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점이 그것이다.
16. 태조가 해마다 인근 고을의 組 50석을 그 절에 납부하도록 했다. 그 절에서는 태조와 보양의 진용을 안치하고 절 이름을 봉성사로 고쳤다. 그 뒤에 보양은 작갑사로 옮겨 갔다.

서술층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1~9, 사건10~14, 사건15~16이 그것이다. 사건1~9는 보양이 이목을 시봉으로 삼고 작갑에 절을 세우고 태조로부터 토지를 기부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건10~14는 보양이 이목의 도움으로 민간의 근심을 해소하고 이목의 목숨을 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건15~16은 보양이 작갑에 절을 세우기 전에 태조를 도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사건15~16이 단연 앞서서는 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제일 끝 부분에 배치했다.⁸⁾ 보양의 일생이 온통 고려 건국과 연관된다고 하기 위해 사건1~9의 앞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배치했을 것 같다. 이처럼 서술층위의 초점인물이 보양이라면 보양의 행적만 두드러질 법하나, 정황이 그렇지 않다. 서술층위에서 언뜻언뜻 나타나는 이목의 행적이 그 근거이다.

- A. 보양이 작갑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목의 도움
- B. 이목이 용자로서 보유한 ‘비 내리는 능력’
- C. 시든 배나무를 원 상태로 되돌리는 이목의 신통력
- D. 견성전투의 승리 비결에 대한 이목의 기여

의도가 있어 보인다.

8) 金潤坤, 『麗代之雲門寺와 密陽·淸道 地方』, 『三國遺事研究 上』, 嶺南大出版部, 1983, pp.51-52에서 시간 순서가 어긋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일연이 역사적 사실을 동원하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얽매이지 않는 서술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논점은 설화 구성에 대한 일연의 시각을 가늠하게 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A~D는 서술층위에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이목의 행적이다. 이목의 행적이 B와 C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A와 D에서는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직접적 혹은 간접적 현상은 정치적 사건이나 일상적 사건이나와 연관이 깊다. A와 D는 정치적 사건과 연관이 있고⁹⁾ B와 C는 일상적 사건과 연관이 있는 데서 이런 추리가 가능하다. 정치적 사건이라 여겨질 때는 이목의 행적이 보양의 사적으로 서술되고, 일상적 사건이라 여겨질 때는 이목의 행적이 그대로 이목의 사적으로 서술된다.¹⁰⁾ 보양의 곁에 언제나 시봉으로 서의 이목이 있다고 볼 때, 이목 없는 보양은 생각하기 어렵다. 어떤 사건에서든 이목의 조력이 적지 않았을 터이지만, 화자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이목을 판단한다. 즉, 이목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없고 주변적 역할만 한다고 본다. 화자의 시각에 유의하면서 A~D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A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이목의 행적이다. 서술층위에서 화자는 보양이 작갑사를 지었다고 할 뿐, 작갑사 창건과 이목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여한 바가 없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보다 보양의 공적만을 드러내느라고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목의 행적을 모아보면 이목이 작갑사 창건에 기여했으리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사건3에서 이목이 보양의 시봉이 되었다고 하거나 사건4에서 서해 용왕이 보양에게 당부

9) A와 D가 모두 태조 왕건과 긴밀히 연관된데다 보양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보양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0) 널리 알려진 인물의 행적을 특정 인물의 행적으로 바꾸는 현상은 구비서사세계의 오랜 문화적 관행이다. 보양보다 300년이나 앞선 圓光을 寶壤梨木條에 등장시킨 사실이 그런 점을 말해준다. 원광이 실제로 보양에게 나타났을 리는 만무하다고 볼 때, 보양이 만나기는 하되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인물을 원광으로 바꾸어서 서술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이목 이야기의 전승 양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보양이 생존하기 이전부터 있어온 이목 이야기를 보양의 전기에 끌어들여 보양과 대응시켰으리라는 점이 그것이다. 姜晶植, 『寶壤梨木 說話 研究』, 『白鹿語文』6, 白鹿語文學會, 1989, p.85의 논의가 이런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그대로 이목이 따랐다고 하거나 사건10에서 작은 못에 있으면서 불법의 덕화를 남몰래 이루었다고 한 점이 그 근거이다. 사건3, 사건4, 사건10의 내용은 보양이 이목의 힘에 의지하여 작갑사를 창건했다고 보아야 옳다. 왜 이목의 행적이 산개되었는지는 자명하다. 서술층위의 화자가 이목을 주변인으로 밀어내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B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이목의 행적이다. 사건11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 화자는 보양의 지시로 이목이 비를 내렸다고 했지만, 보양의 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이목이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우선, 이목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이다. 사건4에서 용왕이 보양에게 이목을 시봉으로 삼으라고 할 정도라면 이목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아야 한다. 능력 없는 아들을 시봉으로 보낼 리가 만무하다. 그 다음으로, 이목이 불법의 덕화를 도모한다는 점이다. 민간의 가뭄을 해결한다면 불법의 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터이므로, 이목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있다. 이목의 자질이 이처럼 독특하므로 아무리 보양을 드높이고자 하는 화자라 할 지라도 이목의 행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이목의 행적은 인물이 화자에게 승리했다는 징표¹¹⁾가 된다.

C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이목의 행적이다. 사건14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배나무는 이목 대신에 벼락을 맞았다. 멸절한 배나무가 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목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목이 배나무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동일하게 인식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른바 ‘동일성의 인식’은 만물의 생명을 하나로 보는 불교 교리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불교 교리와 일치하는 본연의 가치관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더 따져야 하겠으

11) ‘형상의 영역인 서술층위’에서 ‘사실의 영역인 인물’을 반영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사문맥상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목 이야기가 이에 해당된다.

나, 우주적 차원에서 온갖 생명체를 동일하게 여긴다는 점은 일치한다. 정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화자는 이목이 자기의 이름과 배나무의 漢字음이 같다고 여겨서 배나무를 되살렸다고 한다. 귀퉁이만 보고 전체를 규정하는 논법¹²⁾이어서 옳다고 할 수 없다.

D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이목의 행적이다. 서술층위에서 화자는 태조가 보양의 도움으로 견성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할 뿐이고, 승전 과정에서 이목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15에 의거하면 이목이 탁월한 전략을 구사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으리라 본다. 보양이 추화군에 있을 때 태조를 도왔다고 했으므로, 견성전투는 최소한 사건4 이후에나 거론될 수 있다. 정황이 이렇다면 견성전투 시에 이목이 보양의 곁에 있었을 때이므로, 보양이 과연 견성전투의 전략을 내놓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보양이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속간의 지략에 어두웠으리라는 점에서, 견성전투의 전략은 이목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¹³⁾ 화자가 보양의 전기 속으로 이목의 전략을 끌어들이는 결과, 이목의 행적은 보양의 전기 속에 파묻히는 형국이 되었다.

A~D는 이목의 행적으로서 인물층위의 구성요소이다. 서술층위에 나타난 화자의 의도와는 달리, 보양에 대한 이목의 우위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목의 우위를 부각시킬 때, 왜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는가? 화자가 이목의 행적을 산개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이목의 행적을 산개할 수 있는 경우는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즉, 화자가 사적의 이모저모를 풍성하게 보여주고자 할 때는

12) 사건14를 보면, 보양이 배나무를 가리켜 이목이라고 하고 천제의 사자는 배나무에 징벌을 가하고 이목은 배나무를 되살려낸다. 화자가 ‘배나무 되살리기’의 동인을 이목과 배나무의 한자음이 동일한데서 찾으려 한다.

13) 이재범, 『『삼국유사』 ‘보양이목’조의 검토』,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33,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원, 2012, p.117에서도 이런 추측을 하고 있다.

전자가 되고, 화자가 사적의 의미나 의의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후자가 된다. 화자는 보양이 우위에 서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를 택하고, 보양이 우위에 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후자를 택한다.¹⁴⁾ 결국 화자가 서술의 목적을 근거 확보에 두느냐 사실 전달에 두느냐에 따라 이목의 행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서술층위에서 인물층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화자가 서술의 목적을 근거 확보에 둘 때이다. 근거 확보란 ‘보양 사적 확장시키기’이므로, 화자가 근거 확보를 시도하는 순간 서술층위에서 사실과 형상의 틈새가 생긴다. 사실과 형상의 틈새가 크면 클수록 사실을 거점으로 한 인물층위는 위력을 발휘한다. 독자를 빨아들여 화자와 맞대응시키고, 독자에게 형상의 기능과 의의를 따져보게 한다. 인물층위의 위력은 보양이목설화에서 특히 강하다. 보양의 사적들 사이에서 드러난 A~D가 그 근거이다. B와 C는 특히 돋보인다. 화자가 보양이 탁월한 근거를 이목과의 관계에서 찾느라고 이목의 행적을 자세히 서술했고, 그 결과 인물층위의 위력을 드높이기에 이르렀다. 강렬한 근거 확보의 의지가 사실과 형상의 틈새를 크게 만들고,¹⁵⁾ 그런 틈새가 인물층위를 위력적으로 만들었다.

인물층위는 서술층위에서 나왔지만, 인물층위 그 자체로 독자성을 지닌다. 인물층위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이목의 전기를 형성한다는 점이 그

14) 화자가 이질적인 여러 사실을 보양의 사적으로 포장할 때 사실과 형상 간에 틈새가 형성된다. 틈새의 크기나 그 성격을 구명하는 독자의 경우에는 서술 내용을 감지하는 속도가 느려지겠으나, 이런 현상이 ‘독자가 화자의 의도대로 움직인다’는 징표는 아니다. 독자는 감지 속도를 늦추면서 화자의 의도와는 달리 이목이 보양을 능가하거나 보양 못지않은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전설화를 다수 채집해서 유형별로 내용을 검토해 본다면 화자와 독자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으리라 본다.

15) 화자가 근거 확보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만 사적을 부풀리게 된다. 사적의 총량이 본인의 행적을 넘어서게 되면 형상의 영역은 사실의 영역과 대치 상태에 놓인다. 이런 현상을 ‘사실과 형상의 틈새가 가져다주는 효과’라고 지칭해볼 수 있다.

근거이다. 태조가 건성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목이 보양을 도운 사건과 보양을 뒷받침해서 작갑사를 창건한 사건은 상부구조의 구성요소이고, 비를 내려 민간의 근심을 덜어준 사건과 우주적 생명체계의 차원에서 시든 나무를 되살려낸 사건은 하부구조의 구성요소이다. 인물층위의 독자성은 하부구조에서 비롯된다. 상부구조는 보양의 사적에 복속해 있지만, 하부구조는 보양의 사적을 벗어나서 별도로 이목의 전기를 형성한다. 그 결과, 상부구조 없이도 이목의 전기는 존립 가능하지만, 하부구조 없이는 이목의 전기가 존립할 수가 없다. 이 점에서 인물층위는 서술층위에서 나왔으면서도 서술층위와 대응되는 위상을 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인물층위에 나타난 토속신앙의 성격

이목의 면모는 층위에 따라 다르다. 서술층위에서는 보양에게 복종하는 시봉이고, 인물층위에서는 보양보다 우위에 서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서술층위에서는 열세에 놓이던 인물이 인물층위에서는 어떻게 우위에 서는지가 의문이다. 이목은 보양에게는 없는 두 가지의 특징을 뚜렷하게 지녔다. 모든 생명체나 물질이 인간과 대등하다는 대칭적 세계관¹⁶⁾이 그 한 가지고, 집단의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공동체 의식이 그 다른 한 가지다. 보양 또한 대칭적 세계관이나 공동체 의식을 지니기는 했지만, 이목에게 건

16) 신태수, 『대칭적 세계관의 전통과 서사문학』, 새문사, 2007, pp.14-17 참조. 대칭적 세계관에 입각하면 모든 개체가 그 나름의 영역과 가치를 지니면서 상호 긴밀히 교섭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에 두는 유가적 가치관이나 불교적 가치관과는 구별된다. 삼라만상이 전일적 원리에 입각해 있다고 보는 이상, 무생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연오랑세오녀설화에서 무생물인 바위가 제 스스로 움직여서 연오랑과 세오녀를 일본으로 데려간 점이 그 증거이다.

줄 바가 아니다. 바로 이런 특징으로 인해 이목이 보양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으므로, 이목이 어떻게 대칭적 세계관과 공동체 의식을 전개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대칭적 세계관은 주객이 대등하고 내밀하다고 여기는 문화적 시각이다. 인간, 자연, 사물 간에 차별이 없고 대등하게 교섭한다면 대칭적 세계관이 작용한다고 보면 된다. 대칭적 세계관이 온전하게 작용하는 시대는 이른바 신화시대¹⁷⁾이다. 신화시대는 ‘차별을 전제로 한 고대시대 이후 질서관’과는 구별된다. 고대시대 이후 질서관에서는 대칭적 세계관이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데 비해 신화시대에는 대칭적 세계관이 전일하게 작용한다. 이목은 신화시대의 대칭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 天神의 역할을 佛僧이 대신하는 판국이니¹⁸⁾ 신화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대칭적 세계관을 지녔으니 신화시대의 세계관을 지닌 인물은 분명하다. 신화시대 이후에도 신화시대의 세계관이 잔존한다는 점에서, 한 시대가 끝난다고 해도 세계관은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이목이 신화시대의 세계관을 지녔다는 근거는 II장에서 정리한 사건2, 사건3, 사건4에서 찾을 수 있다. 사건2에서는 수중계와 지상계가 자유롭게 교섭한다. 손쉽게 용왕이 용궁으로 보양을 초청하고 보양이 지상으로 용자와 동행하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한편, 사건3과 사건4에서는 수중인물과 지상인물이 허물없이 대화한다. 사건3의 간접화법과 사건4의 직접화법

17) 필자가 언급한 ‘신화시대’는 시대구분의 용어가 아니다. 신화가 서사의 주된 갈래가 되었던 시기를 이렇게 지칭해 보았을 뿐이다. 시대 구분의 용어를 적용시킨다면 신화시대는 원시시대에 해당된다. 조동일 교수는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77, pp.137-196에서 문학사를 서사의 주된 갈래를 중심으로 하여 신화시대, 전설·민담시대, 소설시대로 구분한 바 있는데, 필자는 이 논의에 힘입어 신화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8) 보양이목조에서는 천제가 엄연히 등장하지만,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목에게 비를 내리라고 지시하는 주체가 천제가 아니라 보양이라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고승과 천신이 공존하되 고승이 천신의 권위를 대신하는 시대’의 반영이다.

이 그 증거이다. 두 사진 모두에서 용왕과 보양이 대화한다고 했으므로, 이목과 용왕 그리고 이목과 보양도 상호 대화했을 터이다. 어쩌면 전 생명체가 상호 대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수중계와 지상계의 자유로운 교섭 및 수중인물과 지상인물의 허물없는 대화는 대칭적 세계관이 작용한다는 징표가 된다. 이런 징표가 이목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목이야말로 신화시대의 세계관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신화시대 이후에 신화시대의 세계관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반발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새 시대의 세계관이 신화시대의 세계관을 용인할 리가 없다. 그런 현상을 보양이목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양이목설화의 화자는 전설시대의 세계관을 지녔다. 이목이 현실적 장벽을 절감하고 위계와 차별의 질서관에 순응한다고 가닥을 잡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현실적 장벽은 ‘각자에게 분명하게 부여된 직능’이다. 다시 말해, 천제는 징벌의 직무를 수행하고 보양은 불법 덕화의 직무를 수행하고 이목은 보양 시봉의 직무를 수행한다. 직능의 경계를 뚜렷하게 만든 까닭이 자유분방한 이목을 시봉의 직능에 가두어두기 위함이므로, 화자가 이목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강한 편이다. 이목과 화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아무래도 신화시대의 세계관이 전설시대의 세계관에 밀릴 것만 같다.

화자의 의도는 그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서술층위의 내용과는 달리, 이목은 시봉의 직능을 넘어선다. 시봉이란 ‘상전을 받드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상전의 능력보다 뒤떨어지고 상전의 지시만을 따라야 제격이다. 이목은 상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상전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지도 않는다. 예컨대, 비 내리는 능력은 이목만이 지녔으며, 보양의 지시를 받지 않고 ‘배나무 되살려내기’도 했다. 이목은 시봉이면서도 시봉이 아니다. 그 원인은 전설시대의 세계관에 있다. ‘각자에게 분명하게 부여된 직능’의 관점이 보양에게 이목의 능력을 겸전할 수 없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이목의

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도록 했다.¹⁹⁾ 이목을 끌어들이고 신화시대의 세계관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신화시대의 세계관이 전설시대의 세계관과 겨룰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목이 공동체 의식을 지녔다는 근거는 II장에서 정리한 사건11에서 찾을 수 있다. 강우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화자는 보양의 지시로 이목이 비를 내렸다는 논법을 취하지만, 전설시대의 직능관에 입각해 있어서 올바른 언술이라 할 수 없다. 사건 12는 화자의 언술과는 다른 사실을 전한다. 보양에게는 강우 명령권이 없었고 천제에게만 강우 명령권이 있었다.²⁰⁾ 화자의 언술을 파고들면 보양이 왜 자기 범위 밖의 명령권을 발동했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이목이 승가와 민간 사이에 위치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목의 역할이 상당했으리라 본다. 즉, 이목이 보양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보양이 천제의 명령권에 도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화자의 언술을 파고들 때 이목은 천제와 보양을 맞대응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목이 보양을 조종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보양이 이목의 말만 듣고 강우 명령권을 발동했을 경우에는 이목이 조종했다고 할 만하나, 그런 증거는 없다. 두 인물의 이해가 일치되었다고 해야 옳을 듯하다. 보양도 불법의 덕화 차원에서 강우의 염원이 있었고, 그런 강우의 염원에 이목이 불을 지폈다고 하는 점이 그것이다. 결국, 강우 행위의 주체는 보양이기도

19) 전설시대에 왜 신화시대의 세계관이 존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소중한 단서이다. 전설시대는 신화시대의 세계관을 부정하고자 하나, 구별과 차별의 직능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화시대의 세계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신화시대의 세계관이 전설시대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구현되므로, 역설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20) 화자에 따르면, 천제는 자신의 허락 없이 비를 내렸다고 하여 이목을 죽이려고 한다. 보양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천제가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화자가 천제를 강우의 명령권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서술을 한다고 여겨진다. 황경숙, 「이무기 설화와 기우제」, 『韓國民俗學報』4, 한국민속학회, 1994, p.181 참조.

하고 이목이기도 하다. 보양이 이목에게 명령권을 발동했기에 보양이 주체이고, 이목이 보양의 염원에 불을 지폈기에 이목이 주체이다. 보양은 군주와 연결되고 이목은 민중과 연결되므로, 보양과 이목이 사회 상·하층부의 일치된 염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이목은 전설시대에서도 적합한 인물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욱더 요청되는 공동체 의식을 전설시대라 해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목이 지닌 대칭적 세계관과 공동체 의식을 검토해보니, 이목은 이질적인 성향의 소유자이다. 전설시대에서 배척하는 대칭적 세계관과 전설시대에서도 환영하는 공동체 의식을 동시에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질적인 성향이 이목의 위상을 뒤흔들 법도 하나,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 이목의 위상은 대체로 굳건하다. 시봉으로서 보양의 덕화 사업을 돕는 이상, 쫓겨날 이유가 없다. 대칭적 세계관만 놓고 보면 미구에 쫓겨날 것 같은 이목이 왜 이처럼 굳건한지가 의문이다. 공동체 의식에 그 답이 있다. 대칭적 세계관은 일시적으로 수용될지언정 종래에는 전설시대로부터 배척을 받았지만, 언제나 필요한 공동체 의식은 환영받을 수밖에 없다. 대칭적 세계관으로 인해 흔들릴 만한 이목의 위상이 공동체 의식으로 인해 안정을 찾는다는 추론이 여기서 가능하다.

이목이 대칭적 세계관과 공동체 의식의 주체라 할 때, 이목은 개체로서의 의의만 지니지 않는다. 대칭적 세계관과 공동체 의식이 자생적 민간신앙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토속신앙의 대변자로 지칭해볼 수 있다. 즉, 토속신앙이 곧 이목은 아니지만, 이목은 곧 토속신앙의 한 표상이다. 그 근거를 전설과 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전설의 경우에는 『三國遺事』, <密本摧邪>·<惠通降龍>의 교룡이 그 좋은 예이다. 교룡은 대칭적 세계관과 공동체 의식에 입각하여 불교적 가치관과 맞선다. 신화의 경우에는 <단군신화>의 단군과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그 좋은 예이다.²¹⁾ 단군과 자청

비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神格이요 인간으로서 만상을 하나로 아우른다. 이와 같은 몇몇 전설과 신화의 주인공과 이목이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목은 분명히 토속신앙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목이 토속신앙의 대변자라 할 때, 보양 또한 단순한 일개 승려가 아니다. 보양은 고려 건국기의 불교계를 일신하고자 했던 승려였다. 禪宗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선종 계통의 운문사를 창건했으므로, 教宗에 맞서는 선종 운동의 주동자라고 할 만하다. 그 요인은 당나라에서 불법을 전수받고 태조 왕건을 도운 데서 찾을 수 있다.²¹⁾ 신분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불교의 선진문화를 체득하고 건국과정에서 공적까지 세웠기 때문에 보양이 선종 운동의 주도자가 되는 현상이 하등 이상하지가 않다. 한마디로 말해, 보양은 불교 신흥세력을 대표하며 선종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려고 했다. 불교의 변방에 있던 승려가 중심권으로 들어왔다면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마련인데, 기존 세력의 포섭과 위계질서의 확립이 보양이 취한 특단의 조치가 아닌가 한다.

이목과 보양이 각기 토속신앙과 불교신앙을 대표한다고 볼 때,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다. 화자는 별 다른 근거 없이 보양이 이목보다 상위에 선다고 규정했다. 선언에 가까운 규정이 왜 나왔는지를 캐보지 않을 수 없다. 화자가 보양의 위업을 칭송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선언적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목을 보양의 시봉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후자의 요인이 더 큰 것 같다. 화자는 객관적 측면에서 보양이 상위에 선다고 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두 인물의 관계를 일방

21) 신태수, 앞의 책, pp.92-118과 pp.20-22와 pp.170-197의 논의 참조.

22) 사학계에서는 진성왕대 이후의 선종계통의 입당 유학승들은 세력 확장을 꾀하기 위해 지방 호족과 긴밀하게 접촉했다고 한다. 보양도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조병환, 『新羅 下代 僧侶들의 入唐 留學과 禪宗 佛教 문화의 擴散』, 『韓國思想史學』40, 韓國思想史學會, 2012, pp.17-18 참조.

적으로 규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선언적 규정으로 보양을 상위에 올려놓은 현상은 불교신앙이 실제로는 토속신앙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토속신앙이 불교신앙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불교신앙보다 우위에 서는 측면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인물층위에 나타난 이목을 통해 토속신앙의 위상을 정리해볼 수 있다. 이목이 토속신앙을 대표하므로, 보양에 대한 이목의 위상은 곧 불교신앙에 대한 토속신앙의 위상을 가리킨다고 해도 무방하다. 보양이목설화에 의거하면 토속신앙은 불교신앙에 비해 뒤처지는 측면도 있고 대등하거나 앞서는 측면도 있다. 뒤처지는 측면은 ‘토속신앙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강도’이다. 불교신앙은 고려 건국과 연관을 맺는 데 비해 토속신앙은 왕권과 연관을 맺지 못한다. 대등하거나 앞서는 측면은 ‘토속신앙이 보유한 권능’이다. 그 자체로는 별다른 권능을 보유하지 못한 불교신앙과는 달리, 토속신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든다. 토속신앙이 인물층위의 주안점이라고 볼 때, 적어도 인물층위에서는 토속신앙의 위상이 불교신앙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IV. 보양이목설화의 인물층위가 지니는 위상

인물층위에 나타난 토속신앙의 원천은 민간설화이다. 인물층위가 토속신앙에 토대를 둔 민간설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서술층위 없이는 인물층위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볼 때, 인물층위에 수용된 민간설화는 곧 서술층위에 민간설화가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살폈듯이 서술층위의 주안점은 보양의 사적이다. 보양의 위업을 드러내기 위해 보양이 홀

름한 인물을 거느렸다고 할 필요가 있었고, 이목의 신화적 세계관이나 신이한 행적도 그런 차원에서 수용되었다. 서술층위에서 상대인물의 행적을 축소시키지 않고 가감 없이 드러낸 현상은 예사롭지가 않다. 민간설화를 점검하면서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간설화라고 하면 이목설화이다. 이목설화에서 보양은 필수적인 인물이 아니다. 보양의 실명이 거론되는 경우는 있어도 주변인에 불과하다. 보양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마치 이목보다 지체 높은 상대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동원된 듯하다. 보양의 사적을 중시하는 『삼국유사』 서술층위와는 다르기 때문에 화자가 보양형 인물의 위상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이목의 위상은 높고 보양의 위상은 낮다. 이런 측면을 이목설화에서 확인하고 『삼국유사』 보양이목설화와 견주어보기로 한다. 다루고자 하는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두 작품이다.²³⁾ 이 두 작품은 지금까지 채록된 여러 설화를 포괄하는 내용을 갖추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목설화를 제시하되 해석의 편의를 위해 사건 단위로 분절·정리하기로 한다.

설화A : 시래호박소의 이무기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8-7

1. 보양선사가 당나라에서 불법을 배워 귀국하다가 용왕의 초청으로 용궁에 들른다.
2. 용왕이 자기 아들을 인세에 활용하라고 요청하자, 이에 보양선사가 수락한다.

23) 『한국구비문학대계』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에 실린 <시래호박소의 이무기 전설>과 <시래호박소의 이무기>이다. 청도군의 운문사 일대와 대비사 일대와 밀양 지역 일부를 당사·채록한 여러 조사자들의 설화와 거의 동일하다. 이 점에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작품이 각 유형을 대표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채록자가 이목설화의 각 유형을 기억하고, 화자에게 이에 합당한 설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3. 보양선사가 용자를 봉성사의 못에 살도록 하며, 이목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4. 이른바 이목은 인세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된다.
5. 어느 해 가뭄이 심했으나, 하늘의 명령을 받지 못해 이목은 속수무책이었다.
6. 보양선사는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하며 이목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간청했다.
7. 이목이 비를 내려 민간의 근심을 일시에 해결해 주었다.
8. 하늘나라에서는 이목이 월권을 했다고 하며 사자를 보내 잡아오게 했다.
9. 이목이 보양선사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자 보양선사는 이목을 불당 밑에 숨겼다.
10. 사자가 이목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자, 보양선사는 배나무를 가리켰다.
11. 사자는 배나무에 벼락을 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다.
12. 이목은 용이 못 될 바에는 인세를 위해 살겠다고 하며, 시래호박소로 갔다.

설화B: 시래호박소의 이무기, 『한국구비문학대계』8-7

1. 이미기라는 사람이 사찰에서 어느 선생 밑에서 공부를 배우고 있었다.
2. 한밤중에 제자가 방을 빠져나가므로, 선생이 은밀히 뒤를 따라가 보았다.
3. 선생이 자기 제자가 마을의 큰 소에서 옷을 벗고 노는 광경을 목격한다.
4. 제자는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었다. 구렁이의 형상으로 둔갑술을 부린다.
5. 선생이 제자의 몸을 만져보니, 온몸이 싸늘했다.
6. 제자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 하자, 그 해에 유난히 가뭄이 심했다.
7. 선생은 저 놈 때문에 옥황상제가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8. 주민들이 선생에게 강우를 청원했으나, 선생에게는 신통술이 없었다.
9. 선생이 자기 제자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청원하게 된다.
10. 선생은 한 사람이 희생되고 백 사람이 사는 길을 찾으라고 간청한다.
11. 먹물을 손가락에 찍어 하늘로 뿜겨 올리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12. 하늘의 명령 없이 비를 내렸기 때문에 차사가 그 제자를 잡으러 내려왔다.
13. 제자는 선생 뒤의 옷자락에 숨었다.

14. 선생이 이미기라는 나무를 가리키고, 차사는 그 나무에다 벼락을 내리쳤다.
15. 제자는 하늘에 올라갈 뜻을 접고, 시례호박소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설화A와 설화B는 인물의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다. 설화A의 경우, 이목이 종속적이기도 하고 독자적이기도 하다. 이목이 보양선사의 지시에 순응하는 데서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목이 스스로 인세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한다든지 등천을 포기하고 시례호박소²⁴⁾로 간다든지 하는 데서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설화B의 경우, 이목이 전적으로 독자적이다. ‘어느 선생’의 제자이기는 해도 단순한 사제관계일 따름이고 주종관계는 아니다. 큰 소에서 둔갑술을 부린다든지 등천하려 한다든지 시례호박소로 간다든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목 스스로의 결정에 기인하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설화A의 경우보다 설화B의 경우가 독자성이 훨씬 더 강한 바인데, 독자성이 강한 설화B는 보양이목설화와 거리가 멀고 독자성이 약한 설화A는 보양이목설화와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다면 얼마나 멀고 가까우면 얼마나 가까운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설화A는 보양이목설화와 가깝되 아주 가깝지는 않다. 이목이 보양선사와 연관된다는 점에서는 가깝지만, 이목이 애초부터 이무기는 아니었고²⁵⁾ 주체적 판단의 소유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가깝지 않다. 후자가 특이하므로,

24)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로 334-1의 계곡에 있다. ‘시례’의 한자는 ‘詩禮’로서 계곡의 이름이고 ‘호박소’는 소[沼]의 모양이 절구[臼]의 호박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東國輿地勝覽』 <白淵祈雨所>에서는 시례호박소를 ‘白淵’이라고 하며 관련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25) ‘瑠目’은 속칭 이무기로서, ‘용이 되려다 못 되고 물속에 산다고 하는 구렁이’를 가리킨다. <보양이목>의 ‘瑠目’이 용이 되려고 하는 구렁이가 아니므로, 이목이 아니라 처음부터 용왕의 아들인 용자였다. 설화A의 화자가 이 점을 밝힌 까닭은 이목이라는 명칭이 용자에 대한 폄훼라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목이 애초에 이무기가 아니었다는 측면은 사건3에서 나타난다. 화자는 보양선사가 龍子에게 ‘이목’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보양선사가 ‘이목’이라 했기 때문에 ‘이목’으로 지칭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이니, 화자는 ‘이목≠이무기’로 여긴다고 할 수 있다.²⁶⁾ 한편, 주체적 판단의 소유자라고 하는 측면은 사건12에서 나타난다. 보양선사를 떠나 시례호박소로 가기까지 이목 그 자신이 전적으로 판단했다고 한 점이 그것이다. 후자의 특징을 종합할 때, 설화A는 보양이목설화와 열개는 유사하되 지향점은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설화B는 보양이목설화와 아주 거리가 멀다. 지체가 다른 두 인물이 등장하고 한 쪽이 다른 쪽을 구해준다는 모티프만 같고, 그 이외 모티프는 보양이목설화와는 전혀 다르다. 우선, 보양의 실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목의 상대역이 ‘어느 선생’으로만 지칭될 따름이다. 그 다음으로, 이목은 밤마다 구렁이의 형상으로 둔갑술을 부린다고 한다. 용자는 아직 미숙하고 어린 상태이므로 성숙한 용이 되기 위해 열심히 수련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목을 ‘용이 못된 뱀’으로 설정했다면 이런 수련 장면은 나타날 수 없다. 또 그 다음으로, 이목 스스로 인세를 위해 등천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목을 지체 높은 자의 시봉으로 한정했다라면 독자적으로 인세를 생각하기 어려웠을 터이다. 이 정도의 차이점이라면 설화B와 보양이목설화의 친연성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화A는 보양이목설화와 가깝되 아주 가깝지는 않고 설화B는 보양이목설화와 아주 거리가 멀다. 두 설화는 이목설화 전체의 양극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목에 민간의식을 투영한 구전설화를 보양이목설화와 견주어 본다면, 그 양쪽의 끝에는 보양이목설화와 가깝되 아주 가깝지는 않은 유형과

26) 화자가 보양선사와 선긋기를 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 같은 ‘선긋기 현상’은 청자에게 화자와 보양의 대비 관계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주 거리가 먼 유형이 놓일 터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목에 민간의식이 아주 적게 투영된 구전설화가 있다고 할 때, 그런 구전설화는 보양이목설화를 읽고 그대로 구술한 경우이므로 구전설화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확히 이렇다면 이목설설화의 전반적인 진폭은 매우 넓다고 보아야 한다. 설화A와 설화B 사이에 무수한 각편이 존재한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예컨대, 아주 가깝지 않으면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각편들이 설화A와 설화B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설화A와 설화B가 이목설화의 양극단에 놓이므로, 이목에 대한 시각이 같을 수 없다. 설화A의 화자는 이목을 ‘용이 되지 못한 미완의 존재’로 인식한다. 보양선사의 식객 노릇을 한다고 한 점이 그 근거이다. 거짓 사망 사실을 감추느라 어쩔 수 없이 시례호박소로 가서 민중을 위해 산다고 하니,²⁷⁾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²⁸⁾ 한편, 설화B의 화자는 ‘인세에 이로움을 주는 용자’로 인식한다. ‘어떤 선생’에 의지하지 않은 채 자청해서 시례호박소로 간다고 한 점이 그 근거이다. 혼자만 잘 되는 등천을 포기하고 다수가 잘 되는 시례호박소행을 택한다고 하니, ‘인세 경영을 구현하는 삶’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방식이 이처럼 뚜렷하게 구별되므로, 설화A와 설화B는 다같은 이목설화이면서도 삶의 방식은 판이하다고 할 수 있다.

27) 황경숙, 앞의 논문, p.186 참조

28)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개인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도 있고 집단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 채록된 설화는 전자의 경향을 보인다. 집단 쪽으로 기울어진 설화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개인과 집단이라는 양가적 관점이 나타나는 이상, 집단 쪽으로 기울어진 설화도 있다고 해야 옳다. 개인 쪽으로 기울어진 설화가 많은 까닭은 채록자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柳增善, 『황철이』, 『嶺南의 傳説』, 螢雪出版社, 1971, pp.462-463의 채록본이 개인 쪽으로 기울어지자 그 뒤로 줄곧 이런 설화가 나타났다. 조사자가 류증선 채록본을 염두에 두고, 화자에게 이와 유사한 설화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삶의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른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설화A, 설화B, 보양이목설화가 모두 이목에 대한 삶의 방식을 다루었으므로, 이목 관련 설화를 포괄해서 구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양이목설화에서 이목이 공동체 의식을 한껏 발휘하므로, 이목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은 ‘오로지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이목이 대칭적 세계관을 숨겨야 하는 시대에 살았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대칭적 세계관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결국, 이목 관련 설화에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은 세 가지다.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과 ‘인세 경영을 구현하는 삶’과 ‘오로지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삶’이 그것이다. 서사의 주된 갈래를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비정할 때, 순차적으로 민담시대, 신화시대, 전설시대를 떠올려볼 수 있다.

신화시대와 연관된 설화: 설화B - 인세 경영을 구현하는 삶

전설시대와 연관된 설화: 보양이목설화 - 오로지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삶

민담시대와 연관된 설화: 설화A -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

이목 관련 설화가 서사의 주된 갈래와 연관된다면, 연관성이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목 관련 설화가 각기 신화시대와 전설시대와 민담시대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신화시대와 전설시대와 민담시대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해야 옳다. 즉, 능력이 탁월한 신격이 등장해서 곤역을 해결해준다는 오랜 염원이 이목설화에 담기면서 설화B가 형성되었고, 어느 개인이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현실적 장벽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인식이 이목설화에 담기면서 보양이목설화가 형성되었고, 이름을 숨기는 사람 가운데는 더러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자가 있다는 인식이 이목설화에 담기면서 설화A가 형성되었다. 세 가닥의 인식은 어느 시대나 민중에게서 나타나므로, 민중의 어떤 인식이 이목설화에 담기느냐에 따라

이목설화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논점을 바탕으로 하여 보양이목설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삼국유사』의 편찬자인 일연이 설화A와 설화B를 참조하고 자신의 의중을 결합하여 보양이목설화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목설화에는 설화A와 설화B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화A와 설화B만을 보았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설화A와 설화B가 단순한 각편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 설화A와 설화B 사이에 여러 각편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화A와 설화B는 하나의 각편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과 구조를 포괄하는 유형의 대표작으로 여겨진다. 정황이 이렇진대 보양이목설화 또한 보양이목설화 유형을 대표하는 각편이라고 해야 합당하다.²⁹⁾ 다시 말해, 일연이 ‘오로지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삶’의 유형을 참조하여 보양이목설화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연이 ‘오로지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삶’의 유형을 참조하여 보양이목설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상대인물도 보양과 걸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화시대와 연관된 이목은 적합하지 않다. 일연이 보양의 시봉 노릇을 하는 이목을 필요로 하지만, 신화시대와 연관된 이목은 인세 경영을 구현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민담시대와 연관된 이목은 더욱 적합하지 않다. 일연은 보양의 권능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이목을 필요로 하지만, 민담시대와 연관된 이목은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방황하기 때문이다. 일연은 전설시대와 연관된 이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목이 대칭적 세계관을 가졌기에 부담스럽기는 하나, 이목이 가진 공동체 의식만은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일연은 전설시대와 연관된 이목을 서술층위에다 담았고, 대칭적 세계

29) 운문사 및 대비사 일대를 조사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오로지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삶’은 이목에 투영된 화자의 가치관이므로, 대대적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한다면 이와 같은 가치관을 지닌 화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본다.

관과 공동체 의식은 서술층위의 몫이 되었다.

서술층위는 인물층위의 토대이고, 인물층위는 구전설화의 토대이다. 서술층위로 인해 인물층위가 존재하지만, 인물층위가 서술층위에만 발을 딛고 있지는 않다. 인물층위는 특정한 구전설화 유형을 대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자적인 의의를 지닌다. 보양이목설화의 인물층위가 ‘오로지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삶’의 방식을 서술한 이른바 보양이목설화 유형을 대변하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당연한 언급이지만, 보양이목설화의 인물층위가 여타 유형을 포괄하지는 않으므로, 보양이목설화 유형을 근거로 설화 A 유형과 설화 B 유형을 탐색하는 작업은 보양이목설화의 인물층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결국, 보양이목설화의 인물층위는 보양이목설화 유형의 거울이다. 보양이목설화의 인물층위가 보양이목설화 유형을 가늠하게 하고 그런 유형의 화자의식을 되짚어보게 한다.

V. 결론

보양이목설화의 서사층위는 두 갈래로 나타난다. 서술층위와 인물층위가 그것이다. 서술층위에서는 ‘琉璃’의 위상이 보양에 비해 낮고 인물층위에서는 ‘琉璃’의 위상이 보양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높다. 일연의 의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서술층위 정도를 주목하면 족하지만, 보양이목설화의 전체 구도와 그 위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서술층위뿐만 아니라 인물층위까지 주목해야 한다. 인물층위는 서술층위를 토대로 하므로, 서술층위로부터 인물층위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서술층위에서 보양과 별도로 나타나는 이목의 행적이 바로 인물층위이다. 이목이 보양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서술층위이지 인물층위가 아니다.

인물층위로 볼 수 있는 사건은 보양이 작갑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목의 도움, 이목이 용자로서 보유한 ‘비 내리는 능력’, 시든 배나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신통력, 견성전투의 승리 비결에 대한 이목의 기여, 이 네 가지다. 이 네 가지의 인물층위는 그 자체로서 독자성을 지닌다. 보양의 사적에 복속된 상부구조와는 달리, 하부구조는 보양의 사적을 벗어나서 별도로 이목의 전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인물층위에 나타난 이목은 대칭적 세계관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목만이 지닌 특징이 인물층위를 지배하므로, 인물층위가 신화시대의 대칭적 세계관과 전설시대의 공동체 의식을 내장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대칭적 세계관과 공동체 의식은 보양이목설화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몇몇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에게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보양이목설화는 토속신앙과 일정한 연관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목이 불교신앙의 대변자인 보양과 맞선다는 점에서, 적어도 인물층위에서는 토속신앙이 불교신앙에 뒤지지 않는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인물층위에 나타난 토속신앙의 원천은 민간설화이다. 민간설화로는 보양이목설화와 가깝되 아주 가깝지는 않은 설화 유형과 보양이목설화와 아주 거리가 먼 설화 유형을 들 수 있다. 보양이목설화는 이들 유형과는 달리 ‘오로지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므로, 보양이목설화 유형이라는 별도의 유형을 받아들였으리라 본다. 보양이목설화의 인물층위는 다름 아닌 보양이목설화 유형의 거울이다. 보양이목설화의 인물층위가 보양이목설화 유형을 가늠하게 하고 그런 유형의 화자의식을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東國輿地勝覽』.

『한국구비문학대계』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2. 논문 및 단행본

姜晶植, 「寶壤梨木 說話 研究」, 『白鹿語文』6, 白鹿語文學會, 1989, p.85.

金潤坤, 「麗代之 雲門寺와 密陽·清道 地方」, 『三國遺事研究 上』, 嶺南大出版部, 1983, pp.51-52.

柳增善, 「광철이」, 『嶺南의 傳說』, 螢雪出版社, 1971, pp.462-463.

신태수, 『대칭적 세계관의 전통과 서사문학』, 새문사, 2007, pp.14-17.

_____, 「수로부인설화의 다층적 주제와 그 콘텐츠 개발 방안」, 『국학연구논총』10, 태민국학연구원, 2012, pp.111-142.

이재범, 「『삼국유사』 ‘보양이목’조의 검토」,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33,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2, p.117.

조동일,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77, pp.137-196.

조범환, 「新羅 下代 僧侶들의 入唐 留學과 禪宗 佛教 문화의 擴散」, 『韓國思想史學』40, 韓國思想史學會, 2012, pp.17-18.

천혜숙, 「삼국유사 ‘寶壤梨木’의 전승론적 검토」, 『韓國民俗과 文化研究』, 螢雪出版社, 1996, pp.19-24.

황경숙, 「이무기 설화와 기우제」, 『韓國民俗學報』4, 한국민속학회, 1994, p.181.

Abstract

The Story-telling Layers and the Character Layers of the
Boyangimok Tale in *Samgukyusa*

Shin, Tae-Soo

The Boyangimok tale has two narrative layers, that is, the story-telling layer and the character layer. In the story-telling layer, the status of 'Imok' is lower than that of Boyang. In the character layer, the status of 'Imok' is equal to that of Boyang, or rather higher than that of Boya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 laye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character, Imok'. The events in which Imok is the main character are four. Therefore, these four events form the character layers. The symmetric outlook on world and the communal spirit appear in the character layers. Imok's own features rule the character layer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character layers contain the symmetric outlook on world of the mythological age and the communal spirit of the legendary age. The nutritive elements of the character layers are folktales, which have three types. Among them, the Boyangimok tale accepts the type of the Boyangimok tale in which the spirit of the legendary age is contained. The character layer of the Boyangimok tale is a mirror of the type of the Boyangimok tales. The character layer mirrors the period in question, gauges the types, and helps to trace back the speaker's consciousness.

Key Word : the story-telling layer and the character layer, The symmetric outlook on world, the communal spirit, the mythological age, the legendary age, folktales.

신태수

소속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주소 : (701-751) 대구시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 1차 110동 603호

전화번호 : (053) 985-8872 / 019-515-8879

전자우편 : sandang@paran.com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